

[바둑]

한국 바둑, 후지쓰배 탈환 '쾌청'

이창호·이세돌·박영훈·강동윤 등 4명 8강 진출

中 2명, 日 2명 생존…6월 6일 서울서 8강전 돌입

한국이 후지쓰배 정상 탈환의 5부 능선을 넘었다. 제22회 후지쓰배 세계바둑선수권전 본선 2회전(16강)에서 이세돌, 강동윤, 이창호, 박영훈 9단이 각각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과 중국이 세계최강 자리를 놓고 자국의 랭킹 1~5위까지 춤출동하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은 이세돌, 강동윤, 이창호, 박영훈, 원성진(이상 한국랭킹 1~5위)과 랭킹 7위인 최철한으로 드립팀을 구성했다.

이에 맞서는 중국은 역시 지난 대회 우승자 이자 올해 세계타이틀을 2개나 거머쥔 구리를 선봉에 세운 다음 콩지에, 청하오, 씨에허,

박문요, 저우루이양, 치우쥔 등 막강 멤버를 출전시켰다.

한국은 지난 11일 열린 1회전에서 원성진, 최철한 9단을 잃은 한국은 본격적인 한·중·일의 경쟁이 펼쳐지는 2회전부터 4명의 주자가 출전해 4명 모두 8강에 오르는 기염을 보였다.

이세돌은 일본의 장수 9단과의 '한·일 1인자 대결'에서 초반 하반에서부터 대성공을 거두고 쉽게 경기를 이끌었다. 후반 들어 맹공을 펴보는 장수에게 낙승을 거뒀다.

이창호는 일본의 다키오 신지 9단과의 대

국에서 시종 접전했으나 막판 하반 대마를 낚아채며 역전승을 거뒀다.

또 '이세돌 킬러'인 중국의 시에허 9단과 만



<이창호 9단>

<이세돌 9단>

<박영훈 9단>

<강동윤 9단>

난 박영훈은 시종 불리한 바둑이었지만, 특유의 끈질긴 바둑을 구사한 끝에 막판 1집반 승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한·일 신예 자존심 대결에서 강동윤 9단은 이야기 유타 8단을 이겼다.

반면 중국은 박문요, 청하오 2명만이 살아남았다.

1회전에서 6전 전승을 거둔 일본은 2회전에 이르자 서서히 소멸됐다.

기대를 모은 장수 9단이 이세돌에게 패퇴한 것을 시작으로 모리 야마, 하네 나오카, 이야마 유타, 하네 나오카, 야마시타 게이고 등

이로써 8강 대결은 한국 4명, 중국·일본 각 2명 등으로 '황금분할'을 이뤘다. 한국은 '양이(兩季)'가 견제한 반면, 중국은 구리 9단과 함께 '이세돌 킬러'로 약명 높은 시에허 9단이 탈락한 것이 아프다.

본선 8강전은 6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대회 우승상금은 1천 500만 원(약 2억 원)이며 제한시간은 각자 3시간, 초읽기 60초 10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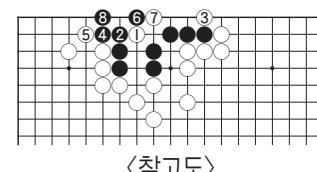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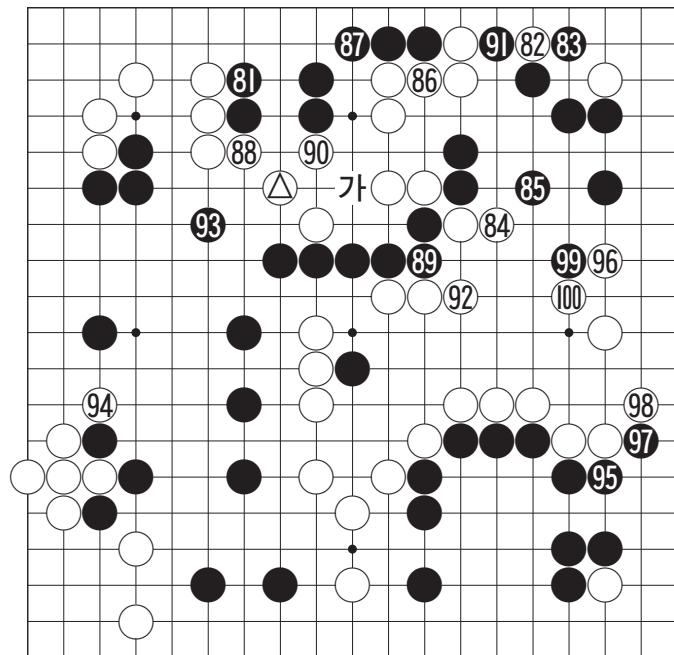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4기 원익배 10단전

단순화된 국면

결승 2국 6보 (81~100)

백 백홍석 6단 黑 박정현 3단



면 '참고도'의 백 1로 치중하여 흑 대마가 꽂늘이 패에 걸려든다. 혹은 2로 막고 6으로 젖힌 다음 8로 패를 만드는 것이 최선인데 이렇게 되면 끝장이다. 흑 91은 끝내기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이 수를 방지한 것이다.

흑 93으로 중앙을 지켜서 상변에서의 접전이 미무리 되었는데 이 결과는 93을 차지한 흑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았다는 결론이다. 게다가 숙제이던 곳이 정리되어 바둑이 단순화된 것도 흑으로서는 반기운 일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극히 미세해서 백홍석이 과연 끝내기에서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건이다.

흑 89는 선수로 백이 90으로 방비하지 않으면 '가'에 불여 끊기는 수가 있다. 그런가 하면 흑 91도 절대수로 이 수를 두지 않으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한국기원 '바둑 세계화 사업' 호평

바둑백서 인터넷 공개·영문 홈페이지 개설 등

한국기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둑 세계화' 사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평가에서 호평을 받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2008년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기원의 바둑세계화사업은 84점을 받았다.

최초로 발간한 바둑백서는 인터넷으로 공개 다운로드 받게 한 사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지원기관별 평균점수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이어 7위를 기록했다. 대한축구협회가 6개의 사업평균 78.4점을 획득해 기관별평균점수

10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기원의 바둑세계화사업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기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바둑의 해외보급을 위한 '전문기사 해외파견 및 해외현지 바둑 행사 개최'·'한국기원영문홈페이지 개설' 등의 사업을 펼쳤다.

한국기원은 올해에도 유럽 및 미주 바둑보급 및 한국바둑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전문기사 해외파견 및 해외 현지 바둑 행사 진행사업'과 바둑백서의 영문판 출간을 추진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수 9단, 日 타이틀 5개 획득 눈 앞

장수 9단이 타이틀 5개 획득을 목전에 뒀다. 장수는 지난 9일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제47기 일본십단전 도전 5번기 3국에서 타이틀을 보유자인 다카오신지 9단을 불계로 누르고 2-1로 앞서 나갔다.

장수는 지난해 1왕좌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일본 7대 타이틀 가운데 명인, 천원, 왕좌, 기상 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아직까지 십단 타이틀을 한 번도 차지해 보지 못한 장수 9단이 십단 타이틀을 획득한다면 일본 7대 타이틀 가운데 5개를 보유하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영구 GS칼텍스배 2연승

이영구 7단이 지난 13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14기 GS칼텍스배 본선리그에서 흥기표 4단을 195수 끝에 불계로 물리쳤다.

이영구는 윤준상 7단에 이어 흥기표마저 물리치고 가장 먼저 리그 2연승을 달성했다.

원성진 9단과 최철한 9단 등 유력한 도전권 후보들이 줄줄이 1패를 기록했고, 안조영 9단과

이영구 7단 등 한동안 틈했던 기사들이 선전하고 있다.

계속되는 본선리그는 17일 이세돌 9단과 윤준상 7단의 대국. 국내 3대 기전(하이원배 명인전, 전자랜드배, GS칼텍스배)에 제한시간은 각 3시간 60초 조작기 5회이다. 우승상금은 5천만 원, 준우승 상금 1천 200만 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투자자모집

- 월 2부 수익금지급
- 확실한 담보 130%
- 안전보장, 수익보장, 비밀보장
- 최소 5,000만 이상 투자 가능

서강파이낸셜
062) 653-75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 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번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질하게 흥정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률 있는 우편을 건물을 추천합니다.

근현시설/월권 대표이사 010-7570-7525 아파트/월권 경매업자 010-2611-5598 주택/재개발 이영철부장 010-3633-9011

소재지 대지/건물 김경기 최지자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김경기 최지자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김경기 최지자 비고

군수동 대119, 건159 11의 62억 6층짜리 일광동 헌디아파트 24 17/3 6천8백 일광동 헌디아파트 24 17/3 6천8백 일광동 헌디아파트 24 17/3 6천8백

노원동 대663, 건263 567평 49억 주유수도권 32 2/2 1억천 8천원 노원동 대39, 건15 8천백 4천원 주의

자양동 대151, 건213 59억 292평 2층의 일광동 헌디아파트 31 15/11 9천 6천원 헌디아파트 31 15/11 9천 6천원 헌디아파트 31 15/11 9천 6천원

도봉동 대31, 건158 49억 29평 2층 고장 일광동 헌디아파트 57 18/4 2억천 1억원 일광동 헌디아파트 57 18/4 2억천 1억원 일광동 헌디아파트 57 18/4 2억천 1억원

신안동 대88, 건265 89억 494평 4층 밀집 일광동 헌디아파트 61 20/6 1억천 1억원 일광동 헌디아파트 61 20/6 1억천 1억원 일광동 헌디아파트 61 20/6 1억천 1억원

송파동 대177, 건159 591평 396평 원미구니 34 16/3 1억천 1억원 원미구니 34 16/3 1억천 1억원 원미구니 34 16/3 1억천 1억원

학동 대82, 건147 49평 3억 원미구니 35 16/3 1억원 원미구니 35 16/3 1억원 원미구니 35 16/3 1억원

모현동 대216, 건21 29억 26평 헌디아파트 55 15/9 1억천 1억원 헌디아파트 55 15/9 1억천 1억원 헌디아파트 55 15/9 1억천 1억원

동작동 대107, 건68 29억 26평 헌디아파트 49 15/14 1억천 1억원 헌디아파트 49 15/14 1억천 1억원 헌디아파트 49 15/14 1억천 1억원

운정동 대228, 건275 269평 15억 8층 밀집 일광동 모현아파트 32 20/1 1억천 7천원 박은동 박은아파트 44 15/4 2억천 8천원 박은동 박은아파트 44 15/4 2억천 8천원

성동동 대37, 건501 19억 5천 5층 유동 헌디아파트 27 10/1 6천 4천원 박은동 박은아파트 44 15/4 2억천 8천원 박은동 박은아파트 44 15/4 2억천 8천원

성동동 대124, 건371 108평 358평 5층 밀집 일광동 헌디아파트 20 17/8 6천 4천원 박은동 박은아파트 44 15/4 2억천 8천원 박은동 박은아파트 44 15/4 2억천 8천원

성동동 대882, 건137 64평 29평 5층 밀집 일광동 헌디아파트 59 16/9 2억천 2억원 헌디아파트 59 16/9 2억천 2억원 헌디아파트 59 16/9 2억천 2억원

소재지 대지/건물 김경기 최지자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김경기 최지자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김경기 최지자 비고

구산동 대112, 건26 13의 59억 6층짜리 16평 헌디아파트 49 15/14 5억천 3층 고장 헌디아파트 49 15/14 5억천 3층 고장 헌디아파트 49 15/14 5억천 3층 고장

성동동 대105, 건26 4억천 16평 헌디아파트 49 15/14 5억천 3층 고장 헌디아파트 49 15/14 5억천 3층 고장 헌디아파트 49 15/14 5억천 3층 고장

용인동 대65, 건116 345평 294평 3층 고장 헌디아파트 50 15/14 5억천 3층 고장 헌디아파트 50 15/14 5억천 3층 고장 헌디아파트 50 15/14 5억천 3층 고장

양현동 대60, 건105 2억천 193평 4층 고장 헌디아파트 51 15/15 4억천 3층 고장 헌디아파트 51 15/15 4억천 3층 고장 헌디아파트 51 15/15 4억천 3층 고장

양현동 대107, 건93 59평 59평 헌디아파트 49 15/14 5억천 4층 고장 헌디아파트 49 15/14 5억천 4층 고장 헌디아파트 49 15/14 5억천 4층 고장

금호동 대107, 건93 59평 59평 헌디아파트 49 15/14 5억천 4층 고장 헌디아파트 49 15/14 5억천 4층 고장 헌디아파트 49 15/14 5억천 4층 고장

금호동 대107, 건93 59평 59평 헌디아파트 49 15/14 5억천 4층 고장 헌디아파트 49 15/14 5억천 4층 고장 헌디아파트 49 15/14 5억천 4층 고장

금호동 대107, 건93 59평 59평 헌디아파트 49 15/14 5억천 4층 고장 헌디아파트 49 15/14 5억천 4층 고장 헌디아파트 49 15/14 5억천 4층 고장

금호동 대107, 건93 59평 59평 헌디아파트 49